교육정책연구 프로젝트팀 운영키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 14일까지 공모접수… 총 10개팀 선정 계획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정기)는 '2021 교육정책연구 프로젝트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장 요구에 기반한 연구 수행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주체 참여를 통한 실천적 정책 및 교육과정·수업·평가 실행 모델 제시를 위해 '교육정책연구 프로젝트팀'을 운영한다.

이번 공모는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일반직·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과제 5개팀, 자율과제 5개팀 총 10개팀을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도 지정주제는 초등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초등 교원), 중등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중등 교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북 환경·생태교육 방향(연구인력풀), 학교행정 시설업무 지원방안(일반직), 학생 자치의 방향과 과제(학생) 등이다.

또 자율주제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정책과제, 생활지도, 고교학점제, 다문화교육 관련 등으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학부모 연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있다. 교원 4팀, 일반직 1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팀 참여 희망자는 2~4명으로 팀을 구성해 오는 14일까지 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갖춰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팀에게는 팀당 200만원 내외의 연구지원비가 지원되며, 선정결과는 오는 24일 발표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신방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목 수업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고산중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협동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대 신방과 학생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고산중서 대학-시민단체-학교 연계 실시

최근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대 신문방송학과가 대학과 지역사회단체, 일선 학교 등이 서로 협업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도했다.

전북대 신방과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목 수업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고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협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 학기 동안 4개 팀으로 나눠 디지털 광고, 1인 방송, 가짜뉴스, 미디어 환경을 주제로 수업 교안을 직접 만들고 이를 고산중 1학년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현장 수업을 진행했다.

일일교사로 현장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4가지 미디어 리터러시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참여활동을 꼼꼼하게 준비해 중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고산중학교 서경옥 교감은 "학생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매우 좋은 기회였고, 실제로 학생들 반응도 폭발적이었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데 비해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낯선 분야로,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나 창의체험활동을 통해 대학-시민단체-학교가 함께 하는 협동 교육을 더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사업단 산학연관 포럼… 80여명 참석

전주비전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지난 1일 학교관계자 및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LINC+사업 참여 9개 트랙(11개 학과) 교수와 (주)엠닉스를 비롯한 참여업체 임직원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LINC+사업단과 참여 산업체, 가족회사,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LINC+사업단 소개 및 2020년 LINC+사업 우수성과 발표, 우수 산업체(12개)에 대한 감사패 증정,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협약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캡스톤 디자인 우수작품 판넬 전시, 지식재산권 출원 성과 등을 전시했다.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양성 및 협약산업체 채용 연계를 위해 협약 산업체 관계자와 공동으로 학생 공동 선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홍순직 총장은 "LINC+사업은 올해 4차년도 사업을 진행중으로 수요자(산업체 및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인프라 구축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주비전대는 이러한 산학협력의 힘으로 취업률 향상 및 우수 협약 산업체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수칙(1~2차에 걸친 발열체크, 테이블간 거리두기 1m, 좌석간 가림막 설치)에 따라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박물관(관장 홍찬석)의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이 지역과 대학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진안장승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전북대 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호응

진안장승초 전교생 대상 진행

전북대 박물관(관장 홍찬석)의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과 대학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진안장승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박물관 대표 소장품 중 지역의 특성이 담긴 고문서를 복제해 선보이며 지역 문화재 체험을 통해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고문서의 쉬운 해석을 위해 그림을 겸비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교육을 이어가며 그 시대의 생활상을 깊숙이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옛 책 만들기 능화판 찍기와 목판 찍기, 조판 찍기, 시전자문양찍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인쇄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도 마련됐다.

진안장승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찾아가는 박물관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원광보건대 협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일 원광보건대학교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및 학술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사 개최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교원양성 과정 학생에 대한 유·초·중등 현직 교원의 특강 등 수업 참여 ▲그 밖의 양 기관의 교육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활동 등이다.

/장은성 기자

군산교육문화회관,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경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체험학습 및 공연관람이 어려워진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참여 수요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개 기관에서 5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폐기도서를 활용한 '페이퍼아트 체험교실', 전래동화를 각색한 '인형극 공연(황소가 된 돌쇠)'을 운영, 독서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버려지는 도서를 활용했다는 점이 아이들에게 버려지는 물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산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우리 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페이퍼아트: 물감대신 종이로 사물,사람,풍경 등 모든 것을 표현하는 예술장르